

루터(Martin Luther)의 95개조 반박문 (I)

흔히 『95개조 반박문』으로 알려진 이 논제의 원 제목은 『면죄부들의 효력의 포고에 대한 토론(Disputatio pro declaratione virtutis indulgentiarum)』이다. 이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이 논제는 면죄부의 효력에 대하여 신학자들에게 공개 토론을 요청할 목적으로 쓰여 졌다. 제목 만 봐서는, 이 논제가 당시의 교회 안에서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소지가 없었다. 왜냐하면 교회의 개혁을 원했던 신학자과 사제들이 면죄부(免罪符)의 폐해에 대하여 지적하고 있었고, 독일 국민들 역시 면죄증이라는 이름으로 자신들의 돈을 수탈해 가는 면죄부 부흥사들과 그들을 배후에서 조종하는 교황에 대한 원성이 컸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논제가 면죄부의 효력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면죄부를 가능하게 만들었던 당시의 속죄제도였던 고해제도와 이 제도를 주관하는 당시의 교회 그리고 그 교회의 수장 교황의 열쇠권에 대하여 공격하고, 더 나아가 면죄부의 이론적인 토대가 되는 신학을 비판하고 있어서 일파만파의 파장을 일으켰던 것이다. 먼저 이 조항들을 이해하기 위하여 미리 알고 있어야 할 몇 가지 사실에 대하여 살펴보자.

I. 면죄부의 생성과정과 95개조 논제의 발단

먼저, 면죄부(indulgentia)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살펴보자. 면죄부는 교회가 부과한 형벌(刑罰)을 사면해 주는 증서였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좀 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그 당시 로마 카톨릭 교회의 은혜관에 대하여 알아야 한다. 카톨릭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는 성례전(聖禮典)을 통하여 주어진다고 보았다. 모든 은혜는 사제의 손을 통해서 주어지는 칠 성례를 통하여, 즉 세례, 성찬, 고해, 견진, 사제서품, 결혼 그리고 종부성사를 통하여 수여된다. 그런데 이 성사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으로 여겨진 것이 바로 고해(告解)성사였다.

고해 성사는 본래 초대교회에서 유래된 고해제도로 거슬러 올라간다. 고해제도는 최악의 궁지에 빠진 죄인을 극적으로 구조하는 일종의 구조(救助)제도였다. 본래 초대 교회에서는 교인이 세례를 받은 후, 우상숭배, 살인, 간통 혹은 배교등과 같은 대죄(大罪)를 지으면 수찬이 정지되고 교회에서 추방되었다. 그러나 교회 외부로부터의 핍박과 내부로부터 생겨난 타락으로 인하여 이런 대죄를 짓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자, 교회는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 고해제도를 고안해 냈다. 과멸 직전에 있는 죄인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이므로, 배가 난파된 후에 살기 위해 붙잡는 ‘구조용 널판지’에 비유되었다. 처음에는 고해제도가 공적으로 이루어졌다. 해당자는 교인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공적으로 인정하고, 그 죄를 자백하고, 그런 다음 교회가 부과하는 형벌을 받고 다시 교회 안으로 받아들여졌다. 교회는 이런 식으로 교회의 거룩성을 유지해 나갔다. 그러나 중세에 접어들면서, 초대교회가 본래 고해제도를 만들 때의 정신이 퇴색하고, 모든 죄가 이 고해제도를 통하여 용서 받는 고해 제도(System)로 발전되었다. 공적인 고해 역시 점점 개인고해로 바뀌게 되었다.¹⁾ 고해는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죄인은 먼저 죄를 미워하고 ‘마음으로 뉘우쳐야’(contritio)하며, 그런 다음 신부 앞에 자신이 지은 죄를 일일이 ‘고해 바쳐야’(confessio) 한다. 그러면 사제는

1) Friedrich Loofs, Leitfaden zum Studium der Dogmengeschichte, Max Niemeyer Verlag, Tübingen 1968, 496-501.

"Ego te absolve"(내가 너를 사면한다)라고 선언하면서 속죄를 선언한다. 이 선언과 동시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罪)를 용서 받게 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신부는,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한 죄는 용서를 받았지만, 교회의 영광을 훼손시킨데 대하여는 응분의 만족할 만한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일을 보속(補贖: satisfactio)이라 칭했다. 그래서 신부는 그에게 형벌(刑罰)을 면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을 정해 주어야 했고, 기도, 철야, 금식, 적선, 순례, 교회당 지을 때 기부 등등의 형벌을 부과했다. 이를 통하여 그가 지은 죄를 철저히 뉘우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했던 것이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이 고해제도가 변질이 된다. 보속으로 부과된 형벌에 대하여 여러 가지 경감(輕減)시스템이 창안된다. 이 중에 하나가 바로 면죄부이다. 면죄부는 죄(罪; culpa)를 사해주는 증서가 아니라 교회에 의하여 부과된 형벌(刑罰; poena)을 감면해 주는 증서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는 면죄부를 돈을 받고 발행해 주는데 까지 이르렀고, 면죄부의 판매를 통한 수입은 십일조를 비롯한 교회가 얻을 수 있는 어떤 수입들과도 비교할 수 없이 컸었다. 그래서 교회는 면죄부의 효력을 '일시적인 형벌의 제거'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만 용서하실 수 있는 '죄의 용서'에까지 확대시켜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가 용서 받을 수 있다고 말했고, 심지어는 면죄부가 연옥에 있는 영혼들도 구원해 줄 수 있다고 까지 가르쳤다. 이 소식은 면죄부의 효력을 의심하고 있던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하였을 터인데, 이는 당시 사람들은 지옥보다 연옥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이었다. 면죄부 판매 부흥사들은 연옥에 있는 조상들을 위해 후손들이 기여 할 수 있는 것은 면죄부를 사는 길 밖에 없다고 선전했다. "면죄부 상자에 돈이 떨어지는 순간 연옥에 있는 영혼들이 거기에서 뛰어나옵니다"라고 외칠 때 백성들은 앞을 다투어 뛰어 나와 면죄부를 샀다.

면죄부 판매의 폐해는 베드로 성당 건축을 하면서 더욱 커지게 되었다. 베드로 성당을 지으면서 교황청은 일시적인 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까지 용서 받는 '완전 사면 면죄부'를 발행한다. 그런데 이 면죄부가 가장 집중적으로 판매되어졌던 곳이 신성로마 제국 내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부유했고 또 교황에게 대체로 순종적이었던 독일 왕국이었다. 교황의 면죄부 판매 계획은 마침 실시될 마인츠 교구의 대주교 선거라는 호기와 맞물려 진행된다. 그 당시 독일 내에서 가장 힘이 있고 큰 교구가 마인츠(Mainz)교구였는데 전임 대주교의 사망으로 인하여 대주교 자리가 비워 있었다. 교황은 적임자를 찾게 되었는데 호헨졸러른(Hohenzollern)가 출신으로서 브란덴부르크(Brandenburg)를 다스리던 요아킴(Joachim)후작의 동생이었던 알브레히트(Albrecht)가 낙점되었다. 요아킴은 독일 황제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중요한 사람이었으므로, 교황은 정치적 목적으로 스물 세 살 밖에 안 되었던 알브레히트를 막데부르크(Magdeburg)교구의 대주교로 임명한다. 그러나 교황은 교회 직책의 중임을 불허하는 교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알브레히트에게 마인츠 교구의 대주교직도 제안한다. 알브레히트는 자신의 야망을 이루고 호헨졸러른 가문의 정치적 영향력을 넓힐 기회가 되고, 교황은 대주교 선거를 인준해주면서 자신이 마인츠 교구로부터 받기로 되어 있는 돈 외에 그로부터 더 높은 변상을 기대할 수 있어, 피차 할 만한 거래였다. 그러나 알브레히트는 마인츠 교구가 교황에게 지불해야 할 돈과 또 자신에 대한 호의에 보답하는 감사의 돈을 교황에게 지불해야 했는데 그에게는 그 정도의 큰돈은 없었다. 바로 이때를 이용해 그에게 그 큰돈을 빌려준 사람이 당시 은행 재벌이며 킹메이커로 통하던 푸거(Fugger)가문의 야콥 푸거이다. 푸거는 알브레히트가 그 돈을 갚도록 교황으로 하여금 베드로 성당 건축을 위해 발행된 희년 면죄부를 비롯해서 여타의 면죄부들을 발행하도록 부추긴다. 교황은 마인츠에서 면죄부를 발행하게 했으며 면죄부 판매의 전권을 알브레히트에게 위

임한다. 알브레히트는 막테부르그에서도 면죄부 발행청을 만들었고, 면죄부의 판매를 위한 홍보 부흥사를 고용하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도미니칸 교단 출신 테첼(Johann Tetzel)이었다. 이 테첼의 등장과 함께 면죄부 판매 사업은 활기를 띠게 된다.

테첼은 키가 작고 몸집이 큰 사람이었다. 그는 당시 성직자들에게 따라다니던 여러 가지 불명예스러운 구설수에 휘말릴 정도로 결함이 많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면죄부 부흥사로 그의 명성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할 수 없었다. 무엇보다 그가 탁월한 웅변으로 면죄부의 효력과 면죄부를 사야만 하는 이유에 대하여 성경구절들을 적절하게 인용하여 설교할 때 청중들은 압도당했다. "당신들은 이것을 알아야합니다: 고해신부가 충고하는 것처럼, 죄를 자백하고 통회하며 이 께짜에 돈을 넣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그의 모든 죄를 용서 받을 것이며, ... 여러분이 밤낮으로 집요하게 추구하는 뜬세상의 이익에 신경을 쓰는 것처럼, 구원의 문제에 대하여 깨어 있으십시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 그가 가까이 계시실 때에"(이사 55,6). 요한이 말한 바, "낮 동안에 일하라. 밤이 되면 아무도 일할 수 없기 때문이다"(요한 9,4). - 여러분은 당신들의 죽은 부모와 다른 사람들이 소리치며 말하는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단다"(욥기 19,21). 네가 하려고만 한다면 잔돈 몇 푼으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심한 벌과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단다." 귀를 열고 아버지가 아들을 부르며 어머니가 딸을 부르는 그 소리를 들어 보십시오.²⁾ 이런 테첼을 강력히 후원하였던 교황은 면죄부에 대하여 비판을 하는 자는 누구든지 교회로부터 형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명한 스콜라 신학자들도 반대하지 않았다.³⁾ 그리고 백성들조차도 좋아했다. 면죄부 설교는 그 당시 교회에서 가장 인기 있는 설교가 되었다. 이로 인해 교회 안에는 면죄부 설교가 복음의 설교를 대신하게 되었고, 교인들은 십자가의 값비싼 은혜보다 면죄부의 값싼 은혜를 구하고 있었다.

테첼은 독일 전역을 순회하며 면죄부의 효력에 대하여 설교했다. 이런 상황은, 당시 비텐베르그 대학의 교수였던 루터로 하여금 이 문제에 대하여 더 이상 침묵만 하고 있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는 교회를 위하여 부름을 받은 신학자로서 여기에 대하여 뭔가 말해야 한다는 거룩한 부담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얼마 안 되어 그 말해야 할 때가 찾아 왔다. 자신이 목회하던 교회인 "시 교회"(Stadtkirche)의 성도들이 자신 몰래 면죄부 부흥회에 참여하여 면죄부를 사왔다. 그들은 자신들의 영적 아버지였던 자신으로부터 이미 몇 가지 죄에 대하여 지적을 받고 형벌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고해신부인 자신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회개하고 형벌을 받는 대신 면죄부를 들고 기뻐하고 있었다. 그들은 복음의 은혜보다 면죄부의 은혜를 더욱 신뢰하였다. 그로인하여 목양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루터 자신은 면죄부 판매 광경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그 집회에 참여하고 온 성도들의 말을 통하여, 이 집회가 얼마나 휘황찬란하게 행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듣게 되었다. 그러던 중 마인츠의 대주교 알브레히트가 발행한 면죄부에 대한 모든 내용을 요약하고 있는 『*instructio summaria*』를 수중에 넣게 되었을 때, 이 책자 속에서 신자들의 영혼에 독이 될 수 있는 가르침들을 발견하는데, 특히 면죄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네 가지 주요 은혜들"을 보았을 때 그는 흥분한다.⁴⁾ 그래서 그는 이 문제를 정식으로 거론을 해야 되겠

2) 루터, 하나님과 악마사이의 인간, 헤이코 오버만 지음, 이양호·황성국 공역, 한국신학연구소 1995. 285-286.

3) 당시의 대표적인 스콜라 신학자들 중 대부분이 면죄부에 대하여 찬성했다. 피터 아벨라드만이 반대했다. Heinrich Boemer, *Der junge Luther*, R. F. Koehler Verlag Stuttgart, 1971, 146.

다고 생각하여 막데부르그의 감독을 겸하고 있던 알브레히트에게, 테첼이 대대적으로 면죄부를 팔려고 버르고 있던 대 속죄일인 11월 1일의 전 날인 10월 31일에, 면죄부 판매를 반대하는 이유를 적은 95개 조항이 담긴 편지를 써서 면죄부의 판매를 중단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그가 이 편지를 어떤 정치적인 동기 없이 -그는 이 편지에 대하여 아무에게도, 심지어 자신의 영주였던 현자 프리드리히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오직 목양적 관심으로만 썼다는 사실은 다음의 그의 말에 잘 나타나 있다. “모든 감독의 첫 번째 그리고 유일한 의무는 백성이 복음과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배우도록 돕는 것이다.”⁵⁾ 그런 다음 그는 이 논제에 대하여 학자들과 토론을 할 것을 요청하면서, 당시의 관행대로 95개의 논제를 “성 교회”(Schloßkirche)의 북쪽 문에다 붙였다. 이 날이 10월 31일인지 아니면 그 다음 날인지 아니면 일주일 후인지 논란이 많다.⁶⁾ 그러나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논제가 담고 있는 내용이다.

여기에 담긴 내용은 당시의 스콜라신학자들이 행해왔던 토론 관행대로 “여기서는 이런데 저기서는 아니다 (Sic et non)”라는 방식으로 토론하다 끝날 그런 정도의 것이 아니었다. 95개의 조항들에는 단지 면죄부의 오용에 대한 지적뿐만 아니라 교황청의 주 수입원이었던 고해제도의 문제점들을 폭로하고 심지어는 교황의 권위까지도 떨어뜨리는 내용도 담겨 있어서, 일반 평신도들이 알면 큰 혼란이 야기 될 수 있었고 면죄부 판매 사업에도 차질을 가져올 수 있었다. 이런 위험성을 가장 먼저 알아채고 이 문서 속에 담겨 있는 반 권위적인 냄새를 맡아 냈던 사람이 테첼이었다. 또한 카에탄(Cajetan)이나 에크(J. Eck)와 같은 로마교회의 관변신학자들 역시 이 논제들 속에 교회의 머리이며 자신들의 주인에게 대드는 반항정신(Protestant)이 숨어 있음을 간파했다. 비록 이 논제에 대한 학문적인 토론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 논제는 독일어로 번역되고 인쇄되어 십사일 안에 독일전역으로 퍼져나갔다.⁷⁾ 교회는 이런 위험한 정황을 알아차리고 카에탄 추기경을 보내어 루터를 아우스부르그에 소환하여 심문을 한다. 여기서부터 시작하여 루터는 이제 로마교회가 위클리프, 후스와 같이 반드시 없애야 할 인물로 분류된다. 루터는 교황제도나 교황에 대하여 위엄을 떨어뜨리는 것이 그의 목적이 아니라고 말했지만, 상황은 악화되어 결국 1521년 보름스 국회로 불려가 심문을 받고 그가 썼던 책이 불온서적임을 시인하고 그 책들을 철회하기를 강요받는다. 그러나 루터는 이를 거절한다. 그러자 보름스국회를 이끌었던 칼(Karl) 5세는 그를 이단자로 파문을 한다. 이리하여 루터를 추종하는 세력과 그를 반대하는 로마 카톨릭 교회와의 끝없는 싸움이 시작된다. 서로 건너지 못할 강을 건너게 되고 결국 개신교(Protestant)가 태동하게 된다. 그러면 도대체 95개 조항에 무엇이 문제가 되어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 내용의 중요한 부분을 『면죄부 논제에 대한 해설』⁸⁾을 통하여 살펴보자.

4) “네 가지 주요 은혜”란, 면죄부는 모든 죄에 대하여 완전히 용서할 수 있으며, 가장 위대하고 가장 크게 도움이 되며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가능성들로 가득 찬 증서이며, 보편교회의 모든 축복들에 참여하게 해주며, 연옥에 있는 영혼들을 위하여 모든 죄를 완전히 사면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Bernhard Lohse, *Luthers Theologie*, Vandenhoeck & Ruprecht, 1995, 116.

5) WA Br 1 Nr. 48, 39-41.

6) 루터 자신이 여기에 대하여 정확하게 얘기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카톨릭 신학자 Erwin Iserloh가 이 날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러나 루터는 이미 그 전 해인 1516년 10월 31일에 면죄부를 비판하는 설교를 했다. 그는 아마도 이 설교를 기초를 해서 95개도 논제를 작성했을 것이고 바로 10월 31일에 대자보를 붙였을 것이다.

7) 프리텐탈은 루터의 말을 인용한다. “그 논제는 14일 안에 독일 전역으로 달려갔다. 왜냐하면 온 세상이 면죄부에 대하여 불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Richard Friedental, *Luther*, R. Piper & Coverlag, 1967, 155.

8) 원제목은 “Resolutiones disputationem de indulgentiarum virtute”으로서 1518년 8월에 발행되었다. 『루터 선집』 5권, 지원용 편집, (서울, 컨콜디아사 1984), 83-242.

II. 주요 조항들을 통하여 살펴본 핵심 논점들

1. 95개조 논제의 핵심은 회개이다.

이 논제가 유명하면서도 독자들에게 잘 읽혀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 보다 이 논제의 핵심 논제들이 무엇인지가 정확히 파악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개의 경우, 이 논제들이 면죄부에 대한 반박이므로 면죄부에 관계된 구절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려 한다. 그런 구절들을 살펴면서 의미를 파악하는데 애를 먹게 되는데, 이는 당시의 교회의 상황과 신학들을 잘 이해하지 못할 경우에 어찌면 당연한 현상이다. 설령 그 의미들을 제대로 파악했다 하더라도, 면죄부가 사라진 현대 교회의 상황에 제대로 적용시키기 어려우므로 좀 더 집중적으로 고찰할 필요성을 갖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루터는 이 논제들에서 면죄부를 가능하게 만들었던 ‘면죄부 신학’을 비판하고자한다. 회개에 대하여 정의하고, 형벌에 대하여 논하고, 십자가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면죄부의 이론적 토대인 “교회의 보물(Thesaurus Ecclesiae)이론”을 비판하고 복음이 교회의 참된 보물임을 확증한다.

95개조 논제의 핵심은 회개이다. 루터는 이 논제들을 통하여 표면적으로는 면죄부에 대하여 다루지만, 사실은 회개의 의미를 규명하려 한다. 신자가 회개를 해야 하는 것은 신약성경에 명령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참으로 회개한 의인은 십자가(형벌, 고난)를 피하지 않고 그것을 사랑하게 된다. 십자가의 은혜를 효력이 없게 만들었던 당시 교회의 잘못된 고해제도의 사용을 지적하고, 이를 통하여 성도의 삶에서 잊어지고 있던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하여, 신자들로 하여금 ‘면죄부의 값싼 은혜 대신 십자가의 값비싼 은혜’를 구하도록 하는 것이, 그가 논제들을 통하여 독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주요 목적이었다. 이런 주요관심사와 관계해서, 루터는 두 가지 중요한 문제들을 건드리는데 고해제도와 교회의 보물이론을 이용한 교황의 열쇠권의 사용의 문제이다. 그러므로 이 논제들의 핵심조항들은 먼저 고해제도의 배경에서 다루고 있는 회개와 십자가를 다루는 1항에서 7항까지이고, 또한 교황의 열쇠권을 가능하게 만드는 “교회의 보물이론”을 다루고 있는 56항에서 68항까지이다.⁹⁾

2. 회개는 주님께서 명하신 것이고 평생 하는 것이다. (1항에서 3항까지의 해설)¹⁰⁾

첫 번째 논제에서, 루터는 이 논제들을 통해 회개에 대하여 토론을 하고 싶다는 뜻을 분명히 내비친다. “우리의 주인 되시고 선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는 회개하라’(마 4,17)라고 말할 때는, 신자들의 모든 삶이 회개가 되기를 원하셨다.” 회개는 교황이 고해제도에 따라 징해 주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신약성경에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회개에 해당하는 희랍어 “metanonia”의 어원을 분석하면서, 회개란 고해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내고 보속(補贖)으로서 성난 교회를 만족 시키는 공개적인 행위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마음이 변화되어 죄를 미워하는 것을 의미하며 더 나아가 새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참된 보속은 새로운 삶이라고 말한다. 회개가 이렇게 영적으로 이해

9) 8항에서 29항까지는 죽은 자를 위한 면죄부와 그 전체가 되는 연옥에 대한 교황의 권세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30항에서 40항까지는 산자들을 위한 면죄부에 대하여서, 그리고 41항에서 51항에서는 면죄부와 이것을 사서 베드로 성당건축을 위한 기금을 내는 것과 다른 자비의 선한행위들을 비교한다. 53항에서 80항까지는 면죄부의 설교와 복음의 설교를 비교한다. 이런 맥락에서 교회의 보물을 다루는 56항에서 68항까지의 내용이 등장한다. 69항에서 80항에서는 면죄부 설교가들의 허황된 꿈들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81항에서 91항까지는 영혼을 사랑하는 교황이나 감독들이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한다. 그리고 92항은 이 논제의 결론으로 의롭게 된 신자들이 이 땅위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에 대하여 상기시킨다.

10) WA 1, 530-532.

된다면, 회개는 일시적 전지 행위가 될 수가 없으며 전 삶이 회개의 삶이 될 수밖에 없다. 주기도문에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해주시고”라고 일평생 회개기도를 하며 살아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영적회개를 하며 사는 사람은, 내적으로는 육신의 여러 가지 정욕을 억누르며, 외적으로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려고 애쓴다.(2항-3항)¹¹⁾ 이런 회개를 할 때, 신자는 형벌조차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여기고 기꺼이 받는다.

3. 회개한자에게는 형벌이 부과된다. (4항과 5항에 대한 해설)¹²⁾

루터는 이 두 조항에 관한 해설에서, 죄는 사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용서받은 의인에게 형벌을 면제해 주시지 않고 도리어 부과하신다고 분명히 말한다. 그는 이렇게 사제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부과된 형벌은 그리스도인의 생애 내내 동안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그러므로 사람이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한에는 (참 내적 참회를 계속하는 한에는) 형벌이 계속 될 것이다. 즉 우리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 까지 계속 될 것이다.”(4항) 루터는 이 항을 통해, 신자의 전 삶이 회개의 삶,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삶이 되어야 함을 말하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먼저 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신자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지를 말한다. 그는 이미 첫 번째 시편강의(1513-15)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리스도의 고난뿐만 아니라 신자들이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여러 종류의 고난이라는 사실을,¹³⁾ 또한 이런 신자의 고난들은 자유로운 징계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악마와 세계와 육체의 시험들을 통해서 또한 외부로부터의 핍박들을 통하여서도 생긴다고 분명히 말했다. 루터는 죽음 직전에 진지하게 회개를 했었던 버나드나 어거스틴 같은 성인들을 예로 들면서, 신자라면 누구나 이러한 십자가를 죽어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 까지 지속적으로 져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롬 6장 6절, 고후 5장 17절에 근거하여, 그런 회개의 십자가는 신앙인 속에 머무르고 있는 죄의 존속으로 인하여, 옛 사람과 죄의 육체가 죽을 때 까지, 첫 번째 아담이 그의 형상과 함께 몰락할 때까지 그리고 새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완성될 때까지 계속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5항에 대한 해설에서도, 신자에게 부과된 형벌은 하나님에 의해 부과된 것이므로 하나님 외에 어느 누구도 사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한다. 그는 신자들이 받아야 할 여섯 가지 형벌들을 소개한다. 영원한 형벌 즉 정죄 받은 자들의 지옥의 형벌, 연옥의 형벌, 자발적인 복음적 징벌,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질, 교회법에 의한 형벌, 신적인 정의가 충족될 수 있기 위하여 요구되는 징벌이다. 그는 이 형벌 들 중에서, “교황은 그가 그 직권 혹은 교회법의 권세로 부과한 형벌 외에는 어떤 벌이든지 용서할 권세나 의지를 가지지 못 한다.”(5항)고 말한다.

루터는 이 형벌들 중에 세 번째 형벌을, 즉 자발적인 복음적 징벌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간주하고 이런 형벌은 신자에게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는 이런 징벌은 바울이 고전 11장 31절에서 말하고 있으며 영적 참회를 한 사람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한다고 본다. 내적으로 죄를 뉘우친 사람은 육신의 정욕을 극복하고 외적으로 십자가를 진다. 이런 극기와 십자가는 영적 참회의 본성과 구원의 필요와 관련되어 있음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에 의해 명해졌

11) 제 2항: 이 말씀은 하나님께 드리는 성례전적 참회 곧 사제의 직권으로 수행하는 고백과 속죄로서 이해할 수는 있다. 제 3항: 그러나 이 말씀은 단지 내적인 회개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럴 수도 없다. 만일 그 같은 내적회개가 육신의 여러 가지 정욕을 외적으로 억누르지 못 한다면 그 회개는 무가치한 것이다.

12) WA 1, 533-535.

13) 여기에 대하여 쓴 필자의 글이 <그 말씀> 10월호 시편 특집에 『루터는 시편을 어떻게 해석 했는가』라는 제목으로 실리게 될 것이다.

고 인간의 권위가 아니라 은혜와 성령에 의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 하에서도 사제가 그것을 증가시키거나 감해 줄 어떤 권세도 가지지 못한다. 교황이 할 일은 이런 형벌을 제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획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죄인을 위하여 이 형벌을 획득하여 그것을 부과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교황은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부과되었음을 선언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효화시키며(고전 1:17), 가나안인의 남은 자들을 그들의 아들딸들과 결합시키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원수들(죄)을 전적으로 멸망시키지 못할 것이다“라고 경고한다.

루터는 계속 네 번째 형벌인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질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간주한다. 이러한 형벌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았던 신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간섭 때문에 생기는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이러한 형벌은 사제들의 손 밖에 있다. 램 49장 12절과 25절, 벰전 4장 17절, 계 3장 19절 그리고 히 12장 6절과 8절에 근거해서, 루터는 이러한 형벌은 모든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부과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는 독자에게 세례요한도 그리고 위대한 성인들도 그런 형벌들을 감수했음을 상기시키면서, 이런 하나님에 의해 부과된 형벌은 어떤 형태로도, 심지어는 열쇠권을 통해서도 제거될 수 없고, 오직 눈물과 기도를 통해서만 제거될 수 있으며, 그것을 경감해줌을 통해서가 아니라 감당케 함을 통하여 없어진다고 말한다.

이 두 조항에 대한 해설에서, 루터는 죄는 오직 하나님만이 용서하실 수 있으며, 의인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형벌(자발적인 복음적 징벌, 하나님의 징계)들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형벌의 부과가 회개한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 지게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분명히 말한다. (10월호에서 계속됨)

루터(Martin Luther)의 95개조 반박문 (II)

지난 9월호에 게재된 첫 번째 글을 통하여, 필자는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작성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논하면서 그 논제의 생성과 발단 과정을 살펴보고 이 반박문의 기본적인 성격이 나타나고 있는 1항에서 5항까지에 대하여서 살펴보았다. 바로 이어지는 6항과 7항의 해설에서는 형벌의 제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죄(죄책)의 용서라는 사실을 지적하며, 죄가 어떻게 용서 되는지에 대하여, 또 죄인이 어떻게 마음에 평화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4.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하나님의 낯선 일에 속한다. (6항과 7항에 대한 해설)

이 두 조항에서 루터는 신자에게 십자가와 형벌이 발생하는 이유를 자신의 십자가 신학 - 하나님께서 낯선 일을 통하여 본래의 일을 이루시는 방식- 의 관점에서 설명한다.¹⁴⁾

6항에 대한 해설에서, 죄는 오직 하나님 홀로 사하신다는 사실을 천명하며, 교황은 죄가 사해졌다는 사실을 선언할 수 있을 뿐이라고 말한다. “교황은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였다는 것을 선언하거나 혹은 시인하는 이외에 어떤 죄든지 사할 힘이 없다. 기껏해야 그는 그 자신에게 주어진 사건들만을 사할 수 있을 뿐이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도 만일 그의 사죄하는 기능이 업신여김을 당하게 될 때 사함 받았다는 죄는 확실히 그대로 잔재할 것이다.”(6항)

이어서 7항에 대한 해설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죄를 사하시는지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이중의 일을 소개한다. 하나님은 이중의 일을 통하여 즉 ‘낯선 일’(opus alienum)을 통하여 ‘본래의 일’(opus proprium)을 이루신다고 말한다. “만일 하나님께서 한 인간을 의롭게 만들기 시작하신다면 그는 그를 먼저 정죄한다. ... 짧게 말하면 하나님은 그의 본래의 일을 일으키시기 위하여 낯선 일을 행하신다.“ 이런 이중의 일은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정한 방식이다. 이어지는 문장들에서 그는 이러한 죄용서의 방식을 회개와 연결시키면서, 마음의 참된 회개와 영의 겸손 그리고 마음의 평안은 단지 이러한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만 생겨날 수 있다고 말한다. 그 이유를 그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시는(gratia infusa)방식에 기인시킨다. “이런 식의 은혜의 부음은 사제의 용서 이전에 일어난다. 이런 용서는 우선은 진노의 형태아래 숨겨져 있다. 하나님은 그의 은혜를 통하여, 단지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의미하지 않는 진노의 형태아래서만, 신자의 죄를 용서하신다. 이런 하나님의 진노아래서 신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앙만으로’ 평화를 가질 수 있다.“ 죄가 사제의 용서의 선언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진노의 낯선 일을 통하여 죄를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루터는 신자의 마음속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방식과 관계해서는 사제의 역할을 배제하지 않는다. 대신 하나님과 사제의 역할을 분명히 구분시킨다. “이 말씀에 대한 신앙이, 그리고 사제가 이 말씀에 근거하여 사면을 하면서, 양심에 평화를 만든다. ... 하나님의 사죄는 은혜를 일으키지만 사제의 사죄는 평화를 가져온다.”라고 말한다. 이어서 그는 “이렇게 믿음으로 사죄를 받고 마음에 평화를 가지게 될 때 모든 징벌은 그에게 있어 전혀 징벌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마음에 평화를 가진 자는 형벌을 달게 받을 수 있음을 암시한

14) 루터는 1518년 초 히브리서 12장 11절의 난외 주해에서 “십자가 신학”이 무엇인지를 요약하고 있다. WA 57, 79, 16-21, 그리고 80, 11-14.

다.¹⁵⁾ 계속하여 그는 속죄에 대한 바른 이해만이 바른 보속(satisfactio)을 가능하게 한다고 말한다. “사람들은 우선 은혜로운 사죄의 수여자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르침 받아야 한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회개와 속죄 행위에 대하여 절망하도록 설득함을 받음으로써, 동시에 그리스도의 긍휼(동정)에 대한 확신과 마음의 기쁨에 의해 강하게 됨으로써, 마침내 죄를 힘 있게 멸시하고 참회와 속죄행위에 임하게 될 것이다. ... 진정으로 마음에 평화를 가지기를 원한다면 교황의 권세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 왜냐하면 우리는 평화를 오직 그리스도의 약속에 따라 믿는 만큼 만 가지게 되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그는 칭의를 성례전을 통하여 부여하였던 당시 교회의 성례전적 칭의론을 비판하고 “오직 약속에 대한 믿음을 통한 칭의”를 선언한다.¹⁶⁾ “중대한 사실은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에 대한 인간의 믿음인 것이다. ... 그러므로 우리는 행위나 참회나 고백에 의해서가 아니라 믿음에 의해 의롭다 함을 입으며 믿음에 의해 평화를 받는다. ... 성례전을 받으려 나아가는 자는 믿어야 한다(히 11:6). 그러므로 의롭게 하는 것은 성례전이 아니라 성례전에 대한 믿음인 것이다.” 이어서 그는 이런 ‘오직 말씀에 대한 믿음을 통한 칭의(죄용서)’ 때문에 교황이나 사제의 할 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분명히 한다. 용서 받으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제에게 복종하고 모든 일에 겸손해야 한다고 덧붙인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서는 그의 대행자인 사제의 권력에는 전적으로 복종하면서도 그 밖에 다른 모든 일에 대해서는 겸손할 줄 모르는 자의 죄를 결코 사하지 않는다.”(7항)라고 말하며 사제에게 복종만 하면 된다는 안이한 생각에 대해서도 경고하고 있다.

루터는 이런 하나님의 용서의 방식을 교회의 보물 이론을 다루고 있는 56항에서 68항까지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5. 교회의 보물이론은 성경에 위배되는 내용이다. (56항과 57항에 대한 해설)

그는 먼저 면죄부의 발행의 근거가 되는 “교회의 보물이론”은 성경에 위배되는 인간들의 고안 일뿐이라는 사실을 지적한다. 이 이론은 휴고(Hugo von St. Cher : 1263년에 죽음)에 의하여 시작되고 토마스 아퀴나스에 의하여 발전된 이론으로서, 교회의 보물에는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가 있고 여기에 성인들의 잉여(剩餘)공적이 보태지는데, 교황은 이 공적들을 모아서 이 공적에 근거하여 자신에게 허락된 열쇠권을 사용하여 성도들의 죄를 풀어 줄 수도 있고 묶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¹⁷⁾ 56항에서 루터는 교회의 보물들이 -이 이론에 근거하여 교황이 면죄부를 주는데- (성경과 교부들의 글에서) 충분히 언급되어 있지 않고 있고, 또 그리스도의 백성에게도 잘 알려져 있지도 않다고 말하면서, 이 이론이 주로 신학자들 내지는 사제들에게만 알려져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57항에서 그는 교회의 보물이 어떤 시간적인 보물도 아니라고 말한다.

6. 그리스도의 공적은 내적인간에는 은혜를 외적인간에게는 죽음을 가져다준다. (58항에 대한 해설)

58항에서는 교회의 보물들은 그리스도와 성도들의 공적도 아님을 분명히 한다. “이것들이

15) “참다운 회개는 형벌을 달게 받는다. 그러나 면죄부에 대하여 관대한 것은 형벌을 등한시하게 하고 슬피하게 하며 설혹 그렇지 않다하더라도 그와 같은 기회를 주는 것이다.”(40항)

16) Ernst Bizer, Fides ex auditu: Eine Untersuchung über die Entdeckung der Gerechtigkeit Gottes durch Martin Luther, Verlag der Buchhandlung des Erziehungsvereins Neukirchen Kreis Mors, 1958,

17) Gustav Adolf Benrath, Art. Ablass, in: TRE, Bd. 1, 349.

그리스도와 성도들의 공적들이 아닌 것은, 이것들이 교황 없이 내적 인간에게는 은혜와 십자가를 그리고 외적인간에는 죽음과 지옥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이 조항을 그는 이어지는 구절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먼저 죄가 용서되는 방식을 다루면서 앞에서 언급했던 하나님의 이중의 일을 다시 꺼낸다.

그는 하나님의 본래의 일로서 은혜, 의, 진리, 그리고 선택된 사람들 속에 있는 인내와 온유를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 일은 언제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고 본다. 그리스도의 의(iustitia)와 그의 수난의 공적(meritum)이 인간을 의롭게 하고 그의 죄를 용서한다. 그리스도의 공적은 하나의 공적이긴 하지만, 교회의 공적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공적이다. 그러므로 용서의 참된 원인은 하나님 아버지이시다. 하나님 자신이 그리스도의 공적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 이런 하나님의 죄의 용서에 있어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죄의 사면을 위하여 하나님에게 탄원하시는 역할을 하신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시는 그리스도의 피에 호소하는 것이다. 루터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사유의 일을 그의 본래의 일로 본다. 이어서 그는 하나님께서 이 본래의 일을 통하여 의로워진 사람에게 그의 낯선 일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덧붙인다. 이사야 28장 21절에 근거하여 그는 낯선 일의 의미와 목적을 설명한다. 낯선 일은 십자가와 수고, 신자에게 부과되는 여러 가지 형벌들, 죽음, 그리고 육체 안에서의 지옥이다. 이런 일은 죄의 육체를 떨치고 땅위에서의 우리의 지혜들이 죽임을 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결과 죄인이 지옥으로부터 빠져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일어난다. 루터는 계속하여 이런 낯선 일이 세례와 함께 시작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고 새롭게 되어진 사람은 누구나 형벌과 십자가와 죽음을 각오해야 하고 매일 죽음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그는 ‘십자가와 그리스도를 따름’은 칭의에 반드시 따라와야 하는 것으로 본다. “그의 십자가를 자기 위에 지지 않고 그를 따르지 않는 자는 그의 제자로서 가치가 없다. 비록 그가 모든 면죄부를 자기 위에 쌓아 놓았다 해도.”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루터가 하나님의 이중의 일과 십자가를 연결시키면서 스콜라 신학과 십자가 신학을 비교하고 있다는 것이다.

7. 스콜라 신학(Theologia Scholastica)과 십자가 신학(Theologia Crucis)은 형벌에 대하여 서로 다르게 평가한다. (58항에 대한 해설 계속)

먼저 그는 스콜라 신학의 위험에 대하여 불평한다. “이제 보라. 금일에 스콜라 신학이 시작되었다. 스콜라란 말의 뜻은 꾀변적(illusoria)이란 뜻이다. (즉 그리이스어로 그렇게 소리가 난다). 똑같이, 십자가 신학은 텅 비게 되었고 모든 것이 전도되어졌다.” 그는 어떤 점에서 모든 신학적인 입장들이 전도(顛倒)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두 종류의 신학을 비교한다. 먼저, 십자가 신학자가 말하고 가르치는 방식을 설명한다. “십자가의 신학자는 -그는 십자가에 달리시고 숨어계신 하나님에 대하여 말한다- 형벌들, 십자가들, 죽음이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귀중한 보물이고 가장 거룩한 유물이라고 가르친다.”(23-25) 루터는 여기에서 십자가의 신학은 하나님을 우주 만물 속에 자신을 드러내는 영광 속에서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숨겨지신 하나님 속에서 인식하는 신학임을 말한다. 또한 형벌들, 십자가들, 죽음을 피하고 숨기고 싶은 스캔들로서가 아니라,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귀중한 보물이고 가장 거룩한 유물로 여겨야 한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그는 이처럼 신자의 삶에 나타나는 고난을 적극적으로 평가하는 십자가 신학을 태동시킨 분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강조한다. “이 신학의 주인 자신이 거룩하게 하시었고 복 주시었는데, 이는 단지 자신의 가장

거룩한 육체의 접촉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가장 거룩하시고 신적인 의지의 안아주심을 통하여서였다. 그가 이것들을 남겨두신 것은 우리가 정말로 그것들을 보도록, 찾도록 그리고 팔로 끌어 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25-28) 이것은 고통, 십자가 그리고 죽음이 그리스도 자신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도 효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이어서, 그러한 그리스도의 유물들의 보물들이 하나님에 의하여 선물되어졌다는 사실을, 그리고 이런 보물들을 받을 은혜와 영광이 모든 사람에게가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에게만 속한다는 사실도 덧붙이고 있다.

교회의 보물이 십자가와 고난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루터는 당시 교회의 관행이었던 유물추구에 대한 비판에서 좀 더 분명히 한다. 그는 로마로 순례를 하고 그리스도의 바위와 그의 흔적들을 보기 위하여 다른 장소들을 방문하는 사람들을 비판한다. 그런 사람들은 십자가와 고난의 보물과는 다른 보물들을 찾는 사람들이다. 이런 종교 활동들은 위험하다. 그들이 이런 활동을 통하여 참된 유물들 즉 십자가와 고난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온 힘을 다해 던져 버리고 이 곳 저 곳으로 떠돌아다니기 때문이다. 루터는 목양적 관심을 가지고 염려하면서, 십자가와 고난이, 즉 가장 값비싼 유물들이, -이런 천상의 보물들은 이 지상의 보물들과 비교될 수 없다- 흡사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들을 위한 선물처럼 선물 되어 지도록 하나님께 간청한다. 그는 계속하여 민중들이 이러한 보물들에 대하여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한탄하고 여기에 대한 책임을 로마교회의 가장 뛰어난 학자들과 인도자들에게 돌리고 있다. 이 사람들은 그들의 무지로 인하여 이런 정말 귀한 유물들을 던져버렸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까지 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루터는 영광의 신학자(Theologus gloriae)와 십자가의 신학자(Theologus crucis)의 신인식 방법을 비교한다. 그는 영광의 신학을 추구하는 스콜라 신학의 신인식 방법을, 즉 하나님을 그의 창조의 작품들에 근거하여 인식하기를 원하는 자연적 신인식 방법을 비판한다. 그는 더 나아가 스콜라 신학의 뿌리를 공격하고 있다. 그는 영광의 신학이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배웠다고 불평하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선은 사랑받을 가치가 있고 악은 미워할 가치가 있다. 하나님은 극진히 사랑 받을 가치가 있는 분이심으로 오직 사랑 받을 가치가 있는 것들 만 사랑한다. 이 신학은 하나님을 이렇게 지고의 선(summum bonum)으로 만들면서, 고난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하게 된다. 즉 고난은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고 형벌과 고통 역시 결코 적극적으로 평가 될 수 없다. 루터는 여기에서 이런 신인식 방법이 신자들에게 어떤 부정적인 영향들을 가져다주는지 세세하게 설명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는 여기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지고선으로 규정하는 것이 수동적 고난이 하나님의 사랑과 관계되어지지 못하도록 하고 형벌 역시 적극적으로 평가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음을 지적한다.

이 두 신학자들은 서로 다른 신인식 방법으로 인하여 형벌에 대하여도 서로 다르게 평가한다. 형벌에 대한 평가에 있어 영광의 신학자는 십자가의 신학자와 반대된다. 영광의 신학자가 ‘나쁘고 미워해야 할 만한 형벌’들을 없애는 것을 그리스도의 보물로 이해하는 반면, 십자가의 신학자는 형벌을 부과하는 것을 ‘선하고 사랑할 가치가 있는 그리스도의 보물’로 간주한다. 그는 영광의 신학자는 그의 보물에 대한 대가로 금을 받으나, 십자가의 신학자는 그 보물을 그의 백성들에게 공짜로 나누어줌으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시선도 끌지 못하고 결국에는 핍박을 당하고 있다고 꼬집는다. 그는 영광의 신학자가 잘못된 신학으로 신앙인들로부터 그리스도와 같이 되려는 가능성을 빼앗는다고 한탄한다. 그 때문에 그는 이 글을 읽

는 독자에게 그가 어느 편에 설 것인지에 대하여 결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8. 교회의 보물은 복음이다. (59항에서 67항까지의 해설)

이어서 그는 무엇이 과연 참된 교회의 보물인지에 대하여 설명한다. 59항에 대한 해설에서 그는 교회의 보물에 대하여 말했던 라우렌티우스는 교회의 가난한 사람들을 교회의 보물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60항에 대한 해설에서 그럼에도 그는 의심 없이 이 보물이 그리스도의 공적들을 통하여 교회에 선물된 열쇠라고 보고 있다. 61항에 대한 해설에서 교황의 특별한 권세는 그에게 허락된 경우들에 한하여서만 형벌들의 사면을 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그는 62항에서 이 반박문의 가장 중요한 문장들 중의 하나가 되면서 그의 신학의 핵심이 될 수 있는 문장을 말한다. “교회의 참된 보물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의 가장 거룩한 복음이다(Verus thesaurus ecclesie est sacrosanctum euangelium glorie et gratie dei)”.(62항) 그는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복음 외에 남겨 놓은 것이 없지만, 이 복음이 교회 안에서 거의 알려지지 않고 있다고 한탄한다. 그는 여기에 대한 이유를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의 눈앞에 자신에 대하여 전혀 개의치 않을 정도로 깊이 숨겨놓으셨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는 이어서 복음의 내용을 요약한다.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과 평화를 위하여 선물로 보내지신 하나님의 아들의 화육에 관한 말씀이다. 또한 구원의 말씀, 은혜의 말씀, 위로와 평화의 말씀, 신부와 신랑의 소리, 축복과 평화의 말씀이다.” 율법은 이 복음과 대조된다. 율법은 파멸의 말씀, 진노의 말씀, 슬픔과 고통의 말씀, 심판과 정죄의 말씀, 평화 없는 말씀 그리고 저주의 말씀이다. 율법이 인간을 정죄하는 반면, 복음은 율법의 정죄로 깜짝 놀란 양심을 위로하고 그 양심을 확신으로 채워 죽음과 어떤 종류의 형벌 그리고 지옥조차 두려워 하지 않게 만들어 준다. 복음만이 우리에게, 우리 행위를 통한 율법의 성취에 대하여 가르치지 않고 신앙을 통한 충만함으로부터 만물에 참여를 가르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참된 영광을 일깨운다. 그러나 복음은 자신의 지혜와 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한다. 왜냐하면 복음은 ‘십자가의 규칙’(regula crucis)에 의하여 이런 것들을 파괴시키고 먼저 된 자를 나중 된 자로 만들기 때문이다.(63 항) 루터는 면죄부의 효력을 아직 부인하지 않는다. 면죄부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고통하며 형벌로 빠져나오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 효력이 있다.(64항) 이어서 그는 “복음의 보물(Thezauri Euangelii)”과 “면죄부들의 보물(Thezaurus indulgentiarum)”을 비교한다. 그는 복음의 보물을 고기를 잡는 그물에 비유하면서, 복음의 보물은 한 때 부한 사람들을 낚는 그물이었지만,(65항) 그런데 면죄부의 보물은 부한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들의 재산들을 낚는 그물이 되고 있다고 풍자하고 있다.(66항) 그는 인간은 형벌들의 사면을 통해서 그의 상황이 더 좋아지거나 하나님에게 더 가깝게 갈 수 없으며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만 좋아질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이런 맥락에서 면죄부를 파는 설교자들을 비판한다. “면죄부 설교자들이 ‘가장 큰 은총’이라고 소리 높이 부르짖는 면죄부는 이익을 증가시키는 한에서는 사실인 것처럼 보인다.(67항)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총과 십자가의 경건에 비하면 그것은 참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68항)

여기까지의 내용을 통하여 그는 면죄부의 신학의 뿌리를 들춰내고 그 뿌리를 공격한다. 그 비판의 핵심은 십자가였다. 면죄부를 사려는 사람은 실상은 십자가를 피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 사람은 십자가를 말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라 ‘인간이 고안해낸 십자가’에 불과하다. 이런 맥락에서 그는 ‘교황의 인장이 새겨진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비교하며, 교황은 십자가를 앞세우면서도 그 십자가로 영혼

을 구하지 않고 도리어 영혼을 고통스럽게 한다고 비판한다.

9.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교황의 십자가는 비교될 수 없이 다른 것이다. (68항에서 91항까지의 해설).

그는 이렇게 성도들에게 큰 유익을 가져다주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어떤 유익도 가져다주지 못하고 도리어 해만 가져다주는 교황의 십자가로 바꾸는 것을 비판하고 있다. “교황의 문장으로 장식된 십자가상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똑 같은 능력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신성모독이다”(79항)라고 말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주고 무거운 짐을 없애주는 반면, 교황의 십자가는 사람들의 죄도 용서받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고통만을 더해줄 뿐이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교황에 대한 뼈 있는 비판을 가한다. “예로서 만일 교황이 베드로 성당에 소비될 썩어질 금전으로 인하여 수 없이 많은 영혼을 구원한다고 할 것이면 어찌 하여 가장 정당하다고 볼 수 있는 이유 즉 거룩한 사랑과 영혼들의 최고의 필요를 위하여 연옥을 비우지 않는가?(82항) ... 또한 오늘날 제일 부자의 재산 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진 교황이 가난한 신자의 돈으로 행하는 대신 차라리 자기의 돈으로 성 베드로 성당쯤은 세울 수 있지 않은가?(86)”

10. 십자가가 선포되는 곳에 참된 평화가 있다. (92항에서 95항까지의 해설)

이제 그는 마지막으로 거짓 평화를 선포하는 로마 교황과 성직자와 신학자들을 예레미야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에 비유하며, 신자들이 그들의 말을 듣고 거짓되고 안전한 평화를 신뢰하는 대신, 형벌과 죽음 그리고 지옥을 통과하지만 마침내 그들을 천국으로 이끄는 제자로 부름 받아야 한다고 권면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백성을 향하여 평안도 없는데 ”평안, 평안“하고 부르짖는 예언자들은 다 물러가라(겔 13:10,16; 렘 6:14, 8:11; 살전 5:3).(92항) 그러나 그리스도의 백성을 향하여 ”십자가, 십자가“하고 부르짖는 모든 예언자들은 축복을 받을지이다. (사실) 십자가는 없는 것이다.(93항) 크리스찬은 형벌이나 죽음이나 지옥을 통하여서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부지런히 따르도록 훈계 받아야 한다.(94항) 이 같이 하여 크리스찬으로 하여금 위안에 의해서 보다 오히려 많은 고난을 통하여 하늘나라에 들어가는데 더욱 깊은 신뢰를 하도록 하라(행 14:22).(95항)” 그러나 그는 오늘날 십자가와 형벌들에 관한 설교를 듣기 힘들 것이라고 경고한다.

III. 95개조 논제에 대한 평가

95개조 반박문은 목양적, 성경해석학적, 신학적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이 논제의 주된 관심은 고통당하는 영혼의 위로에 있었다. 그는 영혼의 위로는 오직 성경으로부터, 무엇보다 성경에 대한 바른 해석으로부터 온다고 보았다. 이런 관점에서 교권을 강화하기 위해 성경을 잘못 해석하여 영혼을 파멸로 이끌었던 로마교회의 신학의 기본 골격들을 공격하고 있다. 그는 영혼을 고통 속에 빠뜨렸던 교해제도의 뿌리를 공격하고 이를 통하여 교황권의 한계를 정하고 있다. 아직 면죄부의 폐지까지는 말하지 않았지만 복음과 십자가의 값비싼 은혜를 주장함을 통하여 면죄부의 값싼 은혜를 효력이 없게 만들었다. 이를 통하여 이 악습으로 인하여 고통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참된 위안의 길을 열어주었다. 죄는 하나님만이 용서하실 수 있다는 사실, 용서 받기 위해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 외에 어떤 행위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리고 용서받은 대가로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용서해주신 은혜에 보답해서 형벌을 받는다는 소리들은 하늘의 위로를 전달하는 복음의 소리들이었을 것이다.

우리는 이 논제를 루터 자신의 신학의 발전의 관점에서도 볼 수 있다. 그는 이 논제들을 통하여 그 자신이 비텐베르그 대학에서 가르치던 십자가 신학을 목회 현장에 연결시키는 좋은 계기를 갖게 된다. 그는 교회의 가장 절실한 문제인 고해의 문제를 다루면서 신약 성경을 좀 더 깊이 깨닫게 되었다. 그는 회개를 하나님 중심으로 이해한다. 하나님을 죄의 용서의 주체자로 세운다. 십자가 역시 하나님 중심으로 이해한다. 하나님이 용서 받은 성도에게 십자가를 선물로 주신다. 형벌 역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들 중 하나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한다. 그는 이로써 인간중심의 철학적 신학인 스콜라 신학으로부터 더욱 분명히 거리를 두게 된다. 이 신학이 의존하고 있던 아리스토텔레스의 권위로부터 성경의 권위로 더욱 철저히 돌아서게 된다.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토론하며 소일하던 스콜라 신학자로부터 성도들의 실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애쓰는 목양신학자로, 양들과 거리를 두고 학문적으로 판단하는 신학자로부터 양들 속으로 들어가 그들의 문제를 끌어안고 함께 씨름하는 목양신학자로 거듭난다.

이런 논제들이 과연 지금의 우리 한국교회에 얼마만큼 상관이 되는지에 대하여 정확히 말할 수는 없다. 오늘날 면죄부는 판매되지 않고 고해제도도 우리 개신교에는 없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논제들의 주요내용을 살펴면서 이 논제들이 우리 한국교회의 개혁의 방향을 잡아가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 율법과 복음이 바로 선포되어야 한다. 율법은 인간 안에 숨겨진 죄를 지적하고 드러내어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위해 설교되어야 하지, 현세의 복 받는 수단으로 설교되어서는 안 된다. 율법이 바로 설교될 때 영혼들이 걸으려는 고통 하는 것 같지만 내적으로는 기뻐하며, 율법이 잘못 설교되면 영혼들이 걸으려는 평안한 것 같지만 내적으로는 탄식한다. 또한 복음을 죄인을 구하는 소식으로 선포해야 한다. 복음을 율법으로 만들어 설교하면 위로를 받기보다 도리어 정죄를 당할 것이다. 복음은 우리 밖에서(Extra nos) 일어난 하나님의 초자연적 역사이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이다. 그분의 성육신과 죽음과 부활에 관한 소식이다. 이 복음의 말씀을 믿는 자는 죄용서를 받는다. 둘째, 십자가가 설교되어야 한다. 복음은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 이중의 일을 일으킨다. 먼저 용서이고 그 다음은 십자가이다. 하나님은 용서 받은 자에게 십자가를 지게 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란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당하신 십자가뿐만 아니라, 우리 신자들이 주님 때문에 당하는 육체의 고난, 환난, 핍박, 시험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신자의 고난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완전한 하나이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얻어진 고난의 유익과 신자의 고난을 통해 아담을 닮은 옛 사람을 죽게 하고 그리스도를 닮은 새 사람을 창조하신다. 셋째, 고난을 축복으로 보는 관점을 가져야 할 것이다. 고난은 하나님이 신자를 가까이 하는 방식이다.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정반대 형태아래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숨기신다. 고난이 신자에게 축복의 통로임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적극적으로 전하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전한다면, 혹은 선포의 언저리에서만 맴돌게 하고 있다면 우리는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고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다.

모든 지상의 교회가 그렇지만 한국교회 역시 개혁이 되어야 한다. 신학이 개혁되어야 하고 설교가 개혁되어야 하며 신자들의 삶이 개혁되어야 할 것이다. 그 개혁은 십자가와 고난의 가치를 올바르게 깨달음으로써 가능할 것이다. 또한 간절한 기도가 교회를 개혁교회로 만들 것이다. 그러나 이런 진정한 개혁은 우리가 할 수 없음도 겸손히 인정해야 할 것이다. 진정

한 개혁은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 그 분만이 개혁의 방법과 개혁의 때를 알고 계신다. 루터는 이미 여기에 대하여서 예언자적 메시지를 던져 주고 있다. “교회는 교황 한 사람 혹은 많은 사람들 즉 추기경들의 행위가 아닌 개혁을 필요로 하며 -이 양자의 경우는 최근의 공의회에 의하여 증명되었다- 그것은 온 세상의 일, 아니 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행위)인 것이다. 그러나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만 이 개혁을 위한 시기를 알고 있을 뿐이다.”(89항에 대한 해설)¹⁸⁾

18) 위에 인용된 조항들의 해설에 대하여 지면관계로 구체적인 각주를 붙이지 않았다. WA 1, 540 - 628에서 인용하였다.